

# 한전 ‘빛가람 에너지 밸리’ 입주기업 연구개발서 수출까지 전방위 지원

대학·연구소 위탁 연구 2억  
기업 연구비 85%까지 지원

200억 출연 센터 하반기 착공

기업·주민 동반성장 페스티벌

한국전력이 ‘빛가람 에너지 밸리’를 글로벌(Glocal) 창조경제 혁신구역으로 키운다. 이를 위해 에너지 밸리 입주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부터 수출까지 전방위 지원 사업에 나선다.

3일 한전에 따르면 앞으로 빛가람 에너지 밸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은 연구개발(R&D)→제품화→판로개척→수출 등 전 단계를 한전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한전은 우선 기술연구 및 창업·이전 지원을 위해 스마트그리드(SG), 에너지저장장치(ESS), 직류배전(DC) 등 에너지 신

사업 분야 신생기업 전용 협력 연구개발 과제를 신설했다. 이는 한전이 중소기업과 협력해 배전, 송·변전, 정보통신분야 기자재 및 핵심부품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한전이 연구비의 최대 85%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 건당 최대 10억원이던 중소기업 협력 연구개발 지원금을 최대 20억원으로 올리고, 기업에서 대학 또는 연구소와 공동 연구하는 과제는 위탁연구비를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해 산·학·연 공동연구를 촉진키로 했다.

사업은 올 하반기 착공하는 에너지 밸리 센터가 맡는다. 한전과 한전KDN, 한전KPS, 기초전력연구원, 나주시가 총 200억의 사업비를 공동 출연한 이 센터에서는 R&D 업무를 총괄 지원하고, 기업 창업과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법률·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입주기업에게 판로확보 및 해외수출 지원도 적극 지원한다. 한전은 에너지밸리의 기업 창업·이전 활성화를 위해

R&D 연구과제 선정 평가 시 에너지 밸리 내 기업에 가산점을 주고, 과제 성과물이 우수 개발품으로 지정되면 안정적 국내 판로를 확보해 주고 해외 수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전은 5월 한달 동안 사내·외 특별공모를 통해 신생기업 전용 R&D 과제를 발굴해 지원하고, 기업 활동도 도와 초기에 도산하지 않고 에너지밸리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동반성장 문화 구축에도 힘쓴다. 한전은 에너지 밸리를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창조경제 혁신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경영지원제도 확대와 더불어 기업과 시민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빛가람 동반성장 페스티벌’을 연다.

이 행사는 28~29일 이틀 동안 한전 본사에서 개최되며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중소기업,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 등 에너지 밸리 시민 모두가 참여 가능하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광주·전남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봉걸)이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과 공동으로 ‘2015 광주전남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6일 오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중소기업청 사업 참여 9개 특성화고 및 기술사관 주관 2개 대학과 200여개의 중소기업간 채용 협약이 이뤄질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당일 참석하면 된다.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는 내년 병역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군복무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취업시키고자 하는 특성화고의 만남의 장이다.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광주·전남중기청이 시도해 300여명이 채용협약을 체결했으며 103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치하는 등 효과를 봤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위주로 배치하고 있어, 병역지정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산업기능요원 신청기간인 6월 이전에 특성화고생과의 채용 협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서랍속 잠자는 동전 지폐로 바꾸세요

한은, 5월 범국민 교환운동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명중)는 저금통이나 책상서랍 등에 저장돼 있는 주화를 재유통시키기 위해 5월 한달간 ‘범국민 동전교환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운동에는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및 우체국의 모든 영업점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에서 동전은 은행권으로 교환하거나 예금으로 수납할 수

있다. 화폐교환 창구에 비치된 자투리 동전함에 모금된 동전은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를 통해 동전을 교환하는 고객에게는 소정의 홍보용품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전광판, 버스도착안내기 등의 홍보매체와 시내버스 광고를 통해 ‘동전 다시 쓰기’를 홍보한다. 광주 어룡초등학교와 공동으로 ‘동전 다시 쓰기 및 사랑의 동전모으기’ 행사도 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지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신청연령 70세→74세 확대

농사를 짓기 어려워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고령 농업인들을 돕기 위한 경영이양보조금 대상이 확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성광)는 고령 은퇴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가 개정·시행됐다고 3일 밝혔다.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는 은퇴를 원하는 고령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맡기면 매월 ha당 25만원의 보조금을 75세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신청대상 가능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74세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농지요건도 완화했으며 신청가능면적도 4ha로 넓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 로또복권  |                |    |               |    |           | (제648회)  |
|-------|----------------|----|---------------|----|-----------|----------|
| 당첨 번호 |                |    |               |    |           | 2등보너스 숫자 |
| 13    | 19             | 28 | 37            | 38 | 43        | 4        |
| 등 위   |                |    | 당첨금(원)        |    | 당첨자수      |          |
| 1     | 6개 숫자일치        |    | 2,120,987,947 |    | 7         |          |
| 2     |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    | 54,988,577    |    | 45        |          |
| 3     | 5개 숫자일치        |    | 1,517,159     |    | 1,631     |          |
| 4     | 4개 숫자일치        |    | 50,000        |    | 80,986    |          |
| 5     | 3개 숫자일치        |    | 5,000         |    | 1,318,403 |          |



기아차, 테니스 스타 나달 후원계약 5년 연장

기아자동차가 지난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팔레스 호텔에서 기아차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 라파엘 나달과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후원계약을 연장했다. 나달과 김경현 기아차 스페인 판매법인장이 후원계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광주신세계 특급호텔 추진 배경은

## 황금알 낳는 면세점 유치 전략?

광주신세계가 백화점 인근 현 화정동 이마트 광주점과 주차장 자리에 특급호텔 건립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일정과 수익성 확보 방안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지역 유통업계에서 따르면 신세계의 특급호텔 건립은 광주에 특급호텔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유력 기업을 통한 지역투자 유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와 함께, 영업 중인 일부 특급호텔의 경우에도 수익을 내지 못하며 고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무리한 투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광주시의 정책이나 광주신세계의 새로운 사업 구상 측면에서 특급호텔 사업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급증하는 유커(중국인 관광객)에 대비하고 KTX 개통에 맞춰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빨대효과’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2019년 세계수영대회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이나프렌들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든든한 우군을 확보한 것이 된다.

광주신세계측도 특급호텔 제안이

“유력기업 통한 투자 유치”

“수익 불안한 무리한 투자”

지역유통업계 엇갈린 시각

광주시에 의한 것이긴 하나 지역법인 창립 20주년을 맞은 지역 기업으로서 지역을 위해 무언가를 기여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광주신세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그룹차원의 구상이지만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는 등 광주신세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선호텔 등 신세계가 갖고 있는 특급호텔 운영 노하우와 부산 등 면세점 유치 경험이 좋은 여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돈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는 특급호텔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무모한 시도며, 사업과 관련해 무리한 행정지원이 이뤄질 경우 화를 자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벌써부터 당장의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수라든지, 지역 소상공인의 이익을 무시한 과도한 ‘바우치식’ 행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광주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특급호텔이 들어서는데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신세계의 특급호텔 사업과 관련, 특급호텔 내 들어설 면세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호텔 시장의 여건을 모르지 않은 신세계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7000억원대의 거금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호텔매출의 70~80을 차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알짜사업인 면세 사업에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신세계가 면세점 사업을 위한 별도 법인을 꾸리는 등 면세점 사업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커의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부산을 롤모델로 삼아 오랜 숙원이었던 면세점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신세계는 4년 전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의 면세점을 인수하며 면세점 운영 노하우를 쌓았고, 인근 백화점과 협력 체제를 갖추는 등 성과를 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언제, 어디에나  
여러분 곁에  
CBS가 있습니다  
SMART CBS

표준FM 103.1MHz AM 999 KHz

www.cbs.co.kr